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최 미 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한 7개교의 전교생, 학급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세부프로그램별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폐쇄형·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혼합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위기개입이 이루어진 2개 학급은 사후 위기개입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친구를 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4개 학급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명존중의식 변화 및 재인식, 심리·정서적 안정 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살 발생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교중심, 청소년 자살,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 평가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세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들과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심사위원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논문발표를 지원해주신 삼성복지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해마다 자살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빈번해지면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011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에서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였으며, 2위는 운수사고, 3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통계청, 2012). 청소년 자살은 절대적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현장,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한편으로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우울증을 완화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나 한국생명연화회와 같은 민간기관들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이론적 접근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자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새롭게 등장한 청소년 자살의 이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집단들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들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한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게 되지만, 가깝게는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자살 사망자를 알고 있는 주변인들을 포함하여 멀게는 자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자살생존자라고 규정할 때, 이들 자살생존자들이 받게 되는 충격과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참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부모(김가득, 2012)와 가족들을 위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모방자살과 같은 전염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자살생각을 촉발하고 모방자살을 시도해보도록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들 자살생존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는 2012년에 한 청소년이 자살한 뒤 3주 만에 같은 반이면서 매우 친밀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방자살을 한 사례가 발생한 D여자고등학교에서 사후 위기개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J중학교에서는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자살 시도를 하였음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다음날 재시도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학교현장을 경험하였고, 담당 교사들이 자살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문제, 변수에 대처하는 위기개입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다. 청소년 자살

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자살의 실태와 원인, 그 영향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에 대처하기 위한 개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로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이승연, 2007),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배주미 외, 2010), 대학생의 청소년기 학급친구 자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배주미·김은영,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학급생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위기개입의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다. 청소년 자살을 탐구한 국외 연구들도 이러한 국내 연구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살과 자살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Bolognini et al., 2003), 자살 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Pfeffer et al., 1991; Prinstein et al., 2000; Blum et al., 2000; Beautrais, 2003; Wong et al., 2011), 자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살 사후의 위기개입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의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 집단으로서 학교현장의 청소년들을 주요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가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2012년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7개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성과, 질을 평가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가? 둘째,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과정과 그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어떠한가?

2. 문헌검토

1) 청소년 자살의 영향과 사후 위기개입의 필요성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의미 있는 타자들(부모를 포함한 유가족, 친구와 같은 반 학생들, 같은 학년 동기들과 다른 학년을 포함한 학교 학생들, 교직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자살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청소년의 자살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사람들은 아마도 유가족일 것이다. 자살자 유가족들은 다른 사별 가족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남겨진 가족의 분노, 수치감, 죄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은 일반 사별가족보다 더 강렬하고 한층 복합적인 비탄의 애도 과정이 된다. 또한 유가족은 가족의 자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그에 따른 후속 자살로 연결되기도 한다(Pompili et al, 2008; 김가득, 2012에서 재인용). 특히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로서 자격 미달이었다는 자기비난 때문에 남은 삶을 견뎌내기 어렵다(김가득, 2012). 김가득(2012)의 연구에서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에 스스로 사회적 고립화를 자처하고 자살유혹, 우울, PTSD 등의 애도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녀 자살의 원인을 전적으로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자살은 집안체면을 깎는 부끄러운 수치라고 보며, 자살을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다음으로 자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은 자살한 청소년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자살이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Grossman et al., 1991; Blum et al., 1992; Brent et al., 1993; Bjarnason and Thorlindsson, 1994; Buddelberg et al., 1996). 공교육 제도 내의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 내에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같은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해왔던 친구들과 사건 당시에는 같은 학급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과 같은 학년의 학생들,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해당 학급을 담당해 온 교사와 동료교사, 교직원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이 학교체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모방자살을 포함한 자살전염성이다(Blum et al., 1992; Bjarnason and Thorlindsson, 1994; Buddeberg et al., 1996). 또래나 교사처럼 자신과 유사하며 잘 아는 사람의 죽음은 학교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살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도 이러한 개입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배주미 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외국에서는 자살 사후개입을 위한 매뉴얼들이 개발되어 왔다. 배주미 외(2010)는 이러한 국외 청소년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과 사후개입 지침들을 토대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후개입 단계의 '학급 위기 개입'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소개에서는 개입 목적, 시간, 진행과정, 규칙 등을 안내하며, 개입전문가는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다. 2단계인 사실 확인에서는 친구의 자살에 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공식적 사안보고서'에 입각하여 사실 정보가 무엇이고, 추측된 정보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한다. 3단계인 경험 공유에서는 친구의 자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때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하도록 조력하며, 친구의 자살 경험 후 현재까지 떠오르는 생각, 느낌, 행동 등 자살로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자살 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알도록 돕는다. 4단계인 대처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장례식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5단계인 종결에서는 개입에 대한 느낀 점을 공유하고, 교내 특별상담실을 안내하며,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에 대해 안내한다(배주미 외, 2010).

이 매뉴얼을 토대로, 한국생명의전화(2011)에서는 청소년 자살이후 학교공동체 사후개입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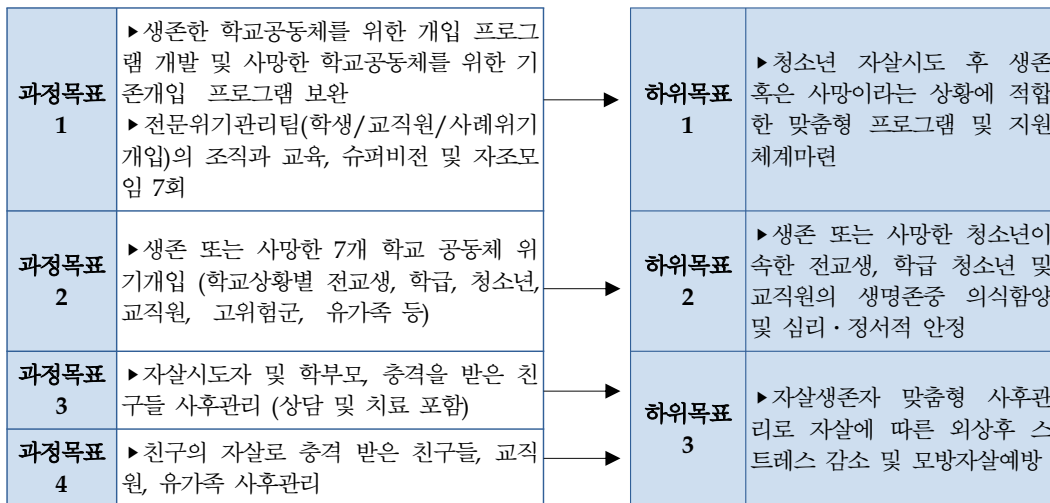
2)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

(1) 목적

자살사고가 일어난 학교공동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시도 후 생존 혹은 사망이라는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체계마련과 위기관리개입으로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고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모방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목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중·고등학교 내 청소년의 자살 시도 후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문위기관리팀의 조직과 역량강화를 통해 자살사고 후 학교공동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자살 사고시 전문위기관리팀을 통한 학교공동체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개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존중의식을 변화시키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자살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모방자살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림 1〉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목표

(3) 내용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프로그램은 한국생명의전화 생명존중연구회가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을

소개하자면, 경기 W중학교와 서울 S중학교에서 2회에 걸친 프로그램 수행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변화 정도가 높고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과 WHO가 권장하는 자살예방지침서 중 자살예방 유가족들을 위한 자조집단 시작하기,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서(하상훈, 2009)를 토대로 전교생과 학급 자살사고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목표는 ① 자살한 학생의 학급생을 대상으로 애도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② 생명존중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모방자살을 예방하며, ③ 집단활동을 통하여 감정을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친구와의 추억 회상과 떠나보내기 의식을 통해 애도과정과 친구에 대한 슬픔 감정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각 학교의 자살 발생상황과 사유, 성별에 따라 활동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표 1〉 참조).

〈표 1〉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표: 친구와의 추억 회상과 떠나보내기 의식을 통해 애도과정과 친구에 대한 슬픔 감정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 간: 1회기, 100분 ▪ 장 소: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중·고등학교 학급의 교실 ▪ 대 상: 학급생, 자살자와 친하였던 친구 ▪ 준비물: 빔 프로젝트, 영상자료, 배경음악, 학생용 활동지, 편지지, 편지함, 빈의자,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 (유품, 사진) 등 ▪ 내 용 | | | |
|--|--------------------------|--|-------|
| 활동 | 제 목 | 내 용 | 소요(분) |
| ① | 들어가기 |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 소개 | 10 |
| ② | 아름다운 추억 [그 친구가 보고 싶다] |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친구와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해보고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적어 본다. 애도과정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기. | 30 |
| ③ | 친구에게 쓴 편지 [떠나보내기 의식] | 기억, 감정 등을 담아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종이비행기로 접어 친구의 빈의자에 붙이거나 편지함에 넣기. | 30 |
| ④ |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애도과정을 극복하는 방법 제언. | 20 |
| ⑤ | 정리하기 | 이 시간 마음을 연 것에 대해 격려하며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 관점에서 마무리. | 10 |

본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훈련된 청소년 전문위기개입팀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주 진행, 보조진행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시하였다. 보조진행자와 학급담임 또는 학교상담교사는 참여하는 학급생의 반응, 행동 등을 관찰하며 친구의 자살로 충격 받은 청소년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팀 접근 형식을 갖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현장 중심의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생태체계관점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하위체계들(학급생,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세부프로그램들도 기획하여 함께 실행하였

다. 전체 프로그램 설계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 성과목표 | 세부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시점 | 횟수 | 대상자 수 | |
|---|-------------------------------------|-------------------------------------|-------------------------------|-----------|--------------------|-----|
| 성과목표1 생존 혹은 사망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 | 지원 체계 마련 및 강화 |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생존한 학교프로그램 개발 / 사망한 학교 프로그램보완 | 1월 | 수시 | 5명 |
| | | 위기개입 팀 | 위기개입팀 조직 / 교육 및 자조, 슈퍼비전 모임 | 2월 | 교육 2/ 자조·슈퍼비전6 | 15명 |
| | | 홍보 (대상발굴) | 설명회 및 워크숍 유관기관 홍보 | 3월 | 총1회 | 50명 |
| 성과목표2 생존 또는 사망한 청소년이 속한 전교생, 학급 청소년 및 교직원의 생명존중 의식함양 및 심리정서적 안정 | 생존 또는 사망한 청소년이 속한 전교생, 학급, 청소년 프로그램 | 전교생교육 | 의뢰시 | 총2회 | 3개교 3,000명 | |
| | | 학급교육 | 의뢰시 | 총2회 | 3개교 90명 | |
| | | 교직원교육 | 의뢰시 | 총2회 | 3개교 150명 | |
| 성과목표3 생존과 사망에 따른 자살생존자 맞춤형 사례관리로 자살에 따른 충격완화 및 모방자살 예방 | 생존과 사망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 | 자살시도자, 학부모, 자살시도로 인하여 충격 받은 친구 사례관리 | 의뢰시 | 총20회 (이상) | 3개교 (1개교 2명 이상) | |
| | | 사망한 학생의 친구들, 유가족 사례관리 | 의뢰시 | 총10회 (이상) | 3개교 청소년 1개교 4명 유가족 | |

<그림 2> 프로그램 설계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그 안에서 구성요소별로, 세부프로그램별로, 클라이언트집단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모델의 구성요소는 투입요소, 과정요소, 산출요소, 성과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과정요소와 산출요소, 성과요소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의 각 절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입요소는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물리적 자원 등이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는지, 산출(실적)요소와는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성과는 클라이언트 집단들과 실천가 집단들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세 개의 단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프로그램들은 또한 여러 개의 세부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정평가와 산출평가, 성과평가에서 이러한 단위프로그램들과 세부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참여자는 자살 청소년이 다니던 학교의 학급생,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프로그램과 세부프로그램별로 표적집단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으며, 따라서 프로그램 과정과 전후에 이들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양적,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학급생,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다. 이 연구에서 평가한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수행한 학교는 7개교다. 7개교의 특성과 자살사안의 특성들 때문에 각 학교에서 수행된 세부프로그램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위기개입에 참여한 청소년 참여자들의 수는 5개교 3,175명이며, 자살한 학생이 속해 있던 학급 대상 위기개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수는 6개교 199명이고, 교직원 대상 위기개입에 참여한 교직원의 수는 4개교 203명이다. 또한 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 참여자는 4개교 20여명이다.

3) 평가방법

이 연구에서는 세부프로그램별, 클라이언트집단별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혼합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표 2〉 참조). 전교생 위기개입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학급 위기개입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 과정,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들을 포함한 질문지, 교직원 위기개입의 경우 객관식 척도와 주관식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급 위기개입의 경우 사전사후 측정과 분석을 계획하였으나 10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기개입 이후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고,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개교는 4가지 영역으로 ① 사후위기개입활동의 만족 여부, ②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친구를 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③ 사후위기개입이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④ 사후위기개입이 친구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양적·개방형 질문으로 혼합하여 구성되었다. 4개교는 ① 사후 위기개입 활동에 참여한 전반적인 소감, ② 구체적인 도움여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도움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양적 질문으로는 ① 오늘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 ② 오늘 활동을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③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도움도 여부, ④ 생명존중 인식 증가 여부로 구성되었다. 6개교 교직원에게는 사후 위기개입이 ① 학급생들이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친구를 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② 학생들이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③ 친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구성되었다.

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개입방법에 따라 표준화된 척도들을 활용하여 사전사후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경우에도 면접과 관찰, 개입기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2〉 평가방법

| 성과 목표 |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 | | |
|---|--|--|--|---|
| | 성과 지표 | 자료원 | 자료수집 방법 | 자료수집 시기 |
| 1. 청소년 자살사도 후 생존 혹은 사망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 | -생존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여부 -사망한 공동체 프로그램 보완여부 | -생명존중연구회 -한국생명의전화 | -개발·보완된 프로그램 매뉴얼/교육자료 (영상, 슬라이드) | -개발·보완 완료시기(2~3월 예정) |
| |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 | -개발진 -위기관리팀 (교육강사 등) -학교공동체 | -면접(interview) -참여관찰조사 -사전사후 만족도조사 | -개입 프로그램 시행 후 |
| | -위기관리팀 전문성 향상률 | -위기관리팀 | -면접(interview) -전문성향상 자가체크리스트 -평가·회의, 슈퍼비전 기록 | -사후(12월) |
| | -사고학교 접수율 | -학교 및 홍보 대상 | -과정기록 -접수신청서 | -수시 |
| 2. 자살사고 발생 후 생존 또는 사망한 청소년이 속한 청소년 및 교직원의 생명존중 의식함양 및 심리·정서적 안정 | -전교생, 학급생, 교직원의 생명존중의식변화율 -심리·정서적 안정율 | -전교생, 학급생 -교직원 | -사전사후자살생각척도 (SIQ) -면접(interview) -참여관찰조사 | -프로그램 사전·사후 |
| | | | -심리·정서적 안정 체크리스트 및 만족도조사 | -프로그램 사후 |
| 3. 생존과 사망에 따른 자살생존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로 자살에 따른 충격완화 및 모방자살 예방 | -자살시도자 및 부모, 자살시도 청소년 자살생각 감소율 -자살 재시도 여부 | -자살시도자, 부모 -자살시도로 인하여 충격 받은 청소년 -교직원 | -사전사후자살생각척도 조사(SIQ) -면접(interview) -관찰조사 -사건 충격 척도조사 (PTSD) -만족도조사 | -프로그램 사전·사후 *PTSD는 프로그램 개입 후 6개월 이후 실시 -프로그램 사후 |
| | -자살자 친구들, 유가족 스트레스 감소율 -모방자살 여부 | -자살자 친구들, 유가족 -교직원 | -보호자 및 교사와 수시연락 | |

4.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평가와 산출평가,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과정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산출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산출요소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산출과 실제 산출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할 것이다. 셋째, 성과평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집단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 프로그램 과정평가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단위프로그램별로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기술하고(〈표 3〉 참조), 이어서 위기개입을 실시한 학교별로 개입과정에서 드러난 특성들을 묘사하며, 마지막으로 과정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개입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다.

(1) 단위프로그램별 과정 기술

단위프로그램별로 과정을 분석하기 전에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고학교 접수율은 청소년 자살사후 생존과 사망시 위기에 놓인 14개교에서 문의가 있었으나 위기개입을 위한 논의에서 갑작스러운 개입 거부로 사망한 학교 7개교에만 개입하게 되었다. 초기 계획시 3개교 개입을 계획하였으나, 7개교의 긴급한 위기개입 요청으로 학교정상화와 모방자살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상황에 맞는 상황별 맞춤형 개입을 진행하였다. 실제로는 14개교 모두 위기개입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측의 거부로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에 개입하지 못한 것이다.

① 지원체계 마련 및 강화

이 단위프로그램은 원래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위기개입팀 조직과 교육 및 자조, 슈퍼비전 모임, 설명회 및 워크숍을 통한 유관기관 홍보의 세 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표 3〉 프로그램 수행결과

| 프로그램 | | 일정 | 횟수 | 세부내용 | 수행방법(주요내용) |
|--------------------|-----------------|-------|-----|---|--|
| 지원 체계 마련 및 강화 | 자살 발생 학교 발굴, 홍보 | 1~12월 | 45회 | 사업설명회 및 학교, 교육청 등 유관기관 홍보 | ·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실시(3월) ·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사업설명(11월) |
| | | | | | · 학교 및 교육청 홍보 · 서울·경기도권 접근성이 가까운 21개교 교육지원청 공문, 안내문 발송, 담당 장학사 사업 안내 · 청소년 생명존중프로그램 진행, 중·고등학교 20개교 및 지역 내 경찰서, 소방서 사업 안내 |
| 생존 또는 사망한 학교 위기 개입 | 전교생 위기개입 | 1~12월 | 6회 | · D여고 자살발생 학년 13개 학급(2회-420명) · H고 전교생(1회-630명) · D외고 1·2학년(1회-785명) · K고 자살 발생 학년(1회-360명) · G중 전교생(1회-980명) | · 자살사안에 따른 상황별 맞춤형 전교생 구조화된 위기개입. · 내용: 생명 탄생의 소중함 인식, 청소년의 생명경시 행동 돌아보기, 자살 생각 및 위험신호 파악하기, 생명존중서약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 · 방법: 영상물, 슬라이드를 활용한 학급별 |

| | | | | | |
|--------------|--------------------|-------|-----|--|---|
| | | | | | (45분, 100분)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장소: 해당 중·고등학교 학급, 시청각실, 강당 |
| | 학급위기개입 | 1~12월 | 12회 | · D여고 (2회-30명) · J여고 (2회-39명) · H고 (2회-26명) · J중 (2회-29명) · K고 (2회-40명) · G중 (2회-35명) | · 자살사안에 따른 상황별 맞춤형 학급 구조화된 위기개입. · 내용: 친구와의 추억 회상과 떠나보내기 의식을 통해 애도와정과 친구에 대한 슬픔 감정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더불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 영상물과 도구를 활용한 학급단위 활동 · 장소: 해당 중·고등학교 학급과 조용한 학교 내 장소 |
| | 교직원 위기개입 | 1~12월 | 4회 | · H고 (45명) · K고 (40명) · D외고 (74명) · G중 (44명) | · 내용: 자살위기 상황시 대응방안, 고위험군 선별방법 등 청소년의 자살시도 사유, 학교별 상황에 따른 교직원 위기개입. · 장소: 해당 중·고등학교 적합장소 |
| 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 | 친구·학부모·교직원·유가족사후관리 | 1~12월 | 40회 | · D여고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 (10회) · J여고 고위험군 상담 및 인근 지역 치료 연계 (1회) · J중 고위험군 5명 집단상담 (8회)/고위험군 학부모 상담 (2회)/교직원상담 (3회) · K고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상담(3회) 및 교육(1회), 가족치료연계(12회) | · 내용: 사망한 청소년의 친구를 위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유가족 상담 등의 사후관리 실시. · 장소: 해당 중·고등학교(집단상담), 대전 생명의전화(유가족 상담), 숭실대학교(가족치료) |

두 번째 세부프로그램인 위기개입팀 구성 등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사업 설명회 및 유관기관 홍보는 연간 45회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그리고 예상보다 자주, 자살로 사망한 학교에 위기개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매뉴얼을 개선할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기개입팀도 원래는 미리 팀을 구성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개입하게 된 학교의 상황과 사건의 맥락, 그리고 실천가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② 생존 또는 사망한 학교 위기개입

이 단위프로그램은 전교생 위기개입과 자살한 청소년이 속해 있던 학급에 대한 위기개입,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개입의 세 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사업수행 결과도 이러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원래 계획은 자살 시도 후 생존한 사례가 속한 학교에도 개입하는 것이었으나 사망한 학교들로부터 의뢰가 자주 오면서 이들 사망 발생 학교에 우선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생존 사례가 발

생한 한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았으나 이후 학교관계자들의 반대로 취소되기도 하였다. 이 단위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의 개입 대상 학교는 7개교이며, 전교생과 학급, 교직원 모두에 개입한 학교는 3개교다. 나머지 4개교 중에서 1개교는 전교생과 학교, 1개교는 전교생과 교직원, 2개교는 학급에만 개입하였다. 대상별로 프로그램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교생 위기개입은 1개교에서 2회, 나머지 4개교에서 1회 실시되었다. 전교생이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이중에서 2개교는 자살이 발생한 학년에서만 실시하였고, 1개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교생 위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총 3천여명이었으며 해당 중고등학교의 학급이나 시청각실, 강당 등에서 이루어졌다. 내용은 생명 탄생의 소중함 인식, 청소년의 생명경시 행동 돌아보기, 자살 생각 및 위험신호 파악하기, 생명존중서약 등을 포함하였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45분, 어떤 학교에서는 100분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학년, 장소, 시간 등이다. 즉, 1,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학급에서 진행할 것인가 다른 교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강당 등에서 집합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규 교과 시간의 중간에 편성할 것인가 전후로 배치할 것인가 몇 시간이나 할애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세 가지 변수는 위기개입팀이나 개별 실천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세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급 위기개입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6개교에서 모두 2회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체 참여 인원은 199명으로 계획된 인원(90명)의 2배 이상이었으며, 장소는 해당 중고등학교의 학급이나 학교 내 조용한 공간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살 사망 후 위기개입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 배분이나 순서, 진행자의 메시지 등은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교직원 위기개입은 4개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참여인원은 각각 40명에서 70여명 정도였고, 총 참여 인원은 203명으로 계획된 인원보다 다소 많았다. 수행장소는 해당 중고등학교의 시청각실이나 회의실 등 프로그램 수행에 적합한 장소를 배정받았다. 이 세부프로그램은 자살위기 상황시 대응방안, 고위험군 선별방법 등 청소년의 자살시도 사유, 학교별 상황에 따른 위기개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③ 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

이 프로그램은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친구, 학부모를 포함한 유가족, 담임교사 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위기개입을 수행한 학교들 중 1개교는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을 10회 실시하였으며, 1개교에서는 고위험군 상담과 인근 지역 치료 연계를 1회 실시하였고, 1개교에서는 고위험군 집단상담 8회와 고위험군 학부모 상담 2회, 교직원상담 3회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1개교에서는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상담 3회와 교육 1회, 가족치료 연계 12회를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의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유가족 상담은 해당지역의 기관에서 제공하였고, 가족치료는 가족치료를 전공하는 대학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위기개입 대상 학교들의 특성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위기개입을 실시한 학교별 주요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별 특성은 <표 4>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D여고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다. 자살한 청소년이 자살한 이유는 교우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고, 사후에 장례식을 치렀다. 자살 사건이 있은지 14일만에 위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학급에서 30여명의 학급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같은 반 학생이 자살한지 3주만에 다시 자살이 시도되어 모방자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여고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다. 자살 사유는 가정문제인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청소년은 거주지 주변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였고, 사후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뒤 30일만에 위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자살한 청소년이 다니던 학급에서 39명의 학급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는 학습생 외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참여하였으며,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아 프로그램 중 애도활동을 할 때 학급생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H고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사안 발생사유는 이성문제인 것으로 추정되며, 거주지 인근 빌딩에서 투신하였고, 사망 후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지 16일만에 위기개입이 진행되었으며, 학교 내에 있는 집단상담실에서 26명의 학급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학교의 경우 자살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학급생들에게 자신들의 자녀가 사망하였음을 직접 알리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후 위기개입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J중은 남자중학교다. 자살한 청소년은 교우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였고, 사망 후 장례식이 치러졌다. 위기개입은 사건 발생 후 8일만에 이루어졌으며, 교내 지구과학실에서 학급생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학교의 경우 시신을 보았다는 아이들 때문에 소문이 무성해졌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슬픔을 참지 못한 청소년이 밖으로 뛰어나가 이후 상담을 진행하였다.

K고는 인문계 남녀공학고등학교다. 자살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였고, 사후 장례식을 치렀다. 사망 후 20일만에 위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청소년이 속해 있던 학급 교실에서 학급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학교의 경우 친구의 자살 이후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여 해당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개입을 실시하였다.

〈표 4〉 학교별 특성과 개입과정

| | D여고 | J여고 | H고 | J중 | K고 | D외고 | G중 |
|----------------|---------------------------|---|---|---|------------------------------------|----------------------------|---|
| 특성 | 인문계 여고 | 인문계 여고 | 특성화고 | 남중 | 인문계 남녀공학 | 특성화고 | 남녀공학 |
| 사안 발생사유 | 교우문제 추정 | 가정문제 추정 | 이성문제 추정 | 교우문제 추정 | 기타 | 가정문제 추정 | 성적비판 추정 |
| 자살방법 | 거주 아파트 투신 | 인근 아파트 투신 | 인근 빌딩 투신 | 거주 아파트 투신 | 인근 아파트 투신 | 한강 투신 | 베란다 투신 |
| 장례식 진행여부 | 有 | 無 | 有 | 有 | 有 | 有 | 有 |
| 사후위기개입 참여 학급생수 | 30명 | 39명 | 26명 | 29명 | 32명 | 40명을 포함한 382명 | 35명 |
| 사건 후 위기개입 시기 | 14일 | 30일 | 16일 | 8일 | 20일 | 6일 | 4일 |
| 위기개입 진행장소 | 해당학급 | 해당학급 | 집단 상담실 | 지구 과학실 | 해당학급 | 소강당 | 시청각실 |
| 비고 | 학급생의 자살발생 3주 이후 모방 자살로 추정 | 학급생 외 친한 친구도 참여.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아 학급생들이 애도 활동시 오열 | 자살발생이후 자살자 부모가 학급생들에게 자녀가 떠났음을 직접 알리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타 학교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후위기개입 진행 | 시신을 보았다는 아이들이 때문에 소문이 더욱 무성하게 난 학교였음. 사후위기개입 중 슬픔을 참지 못한 청소년이 밖으로 뛰어나감. 이후 상담 개입. | 친구의 자살 이후 반복되는 자살 시도 청소년 집중 개입 실시. | 학교의 요청으로 자살발생반과 전교생 함께 진행. | 사안발생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학교축제가 무산되었고, 같은 반 학급생들은 자살한 청소년의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

D외고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자살 사유는 가정문제인 것으로 추정되며, 한강에 투신하였고, 사후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사건 발생 후 6일만에 위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의 요청으로 소강당에서 학급생 40명을 포함한 전교생 38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G중은 남녀공학중학교다. 자살한 청소년은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였고, 사후에 장례식을 치렀다. 사건 발생 후 4일만에 위기개입을 진행하였으며, 시청각실에서 학급생 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위기개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개입 이슈

학교별 위기개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개입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사후 위기개입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마다 자살 발생 사안과 학교 특성, 학교관계자들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이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별 맞춤형 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주담당자(책임자)와 함께 개입 계획을 논의해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개입 방향과 조율하면서 위기개입 목적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자원을 탐색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가까운 기관과 협력하여 개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혼란스러워 하는 학교에는 위기개입 매뉴얼과 가정통신문, 공지문 등의 기본적인 대처자원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학급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은 교직원들을 걸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살 고위험 청소년을 스크리닝하는 Co-worker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방자살을 예방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살사건 발생 이후 학생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기 전에, 자살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 극복 안내 교육, 고위험군 선별방법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자살사건 발생 후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더욱 소문이 무성해지거나 해당 학생들과 전교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죽은 학생의 책상을 보며 '이 책상 누구꺼야?' 라고 묻거나, 죽은 아이를 그리며 눈물을 보이면 '너 또 우냐?'라고 면박을 주는 행동들이 보였다. 이러한 지침과 주의사항들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해당 학급과 전교생에 대한 위기개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살 사후 위기개입시 각 학급에서 진행함으로써 친구와의 추억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교사는 코워커로 함께 하며, 고위험군을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위기개입 대상 학생들과 라포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학교장, 외부상담가 등이 참여한다면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진행 시간도 오전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집중이 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는 학원 스케줄과 집에 갈 생각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넷째, 학급생들과 라포형성이 적었다고 해도, 학급생과 타학급생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살발생 학급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기개입 진행시 장소는 각 학급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또한 전교생 개입은 집합 또는 방송을 이용한 개입보다는 학급마다 자살한 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르므로 각 학급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산출 평가

이 프로그램의 산출(실적)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산출보다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타난 산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3개 단위프로그램과 세부프로그램별로 산출을 살펴볼 것이다.

(1) 지원체계 마련 및 강화

① 생존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매뉴얼 제작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프로그램 개발진(생명존중연구회)과 함께 생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국내·국외에 전무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국내·외 자료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2013년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망프로그램 보완을 위하여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의 지원으로 동영상 더빙을 완료한 상황이다. 개발과 보완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산출은 이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② 위기개입 팀 조직과 자조모임, 슈퍼비전 모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5명의 위기개입팀원을 학생, 교직원, 사례위기개입팀으로 구성하였다. 7개교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1차로 본 복지관과 서울생명의전화, 개발진이 함께 개입에 대해 논의한 뒤, 2차로 위기개입팀원과 세부 개입에 대한 논의와 개입 평가회를 통해 팀원 간의 피드백 제공, 자조·슈퍼비전 모임을 진행하였다. 또한 보수교육을 통해 팀원들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기개입팀의 체계를 더 공고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출 측면에서는 원래 목표였던 7회를 달성하였으며, 85명이 참석하여 85건으로 기록되었다.

<표 5> 프로그램 산출 평가

| 진행과정 | 공정표 | | 평가결과 | |
|---------------|------------------------------|-------|-------------|---|
| | 수행 시기 | 목표량 | | |
| 지원 체계 마련 및 강화 | 1. 생존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매뉴얼 제작 | 1~12월 | - | 개발진과 함께 생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국내·국의 전무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 2013년 완료예정. 더불어 사망프로그램 보완을 위하여 서울 예술공연고등학교의 지원으로 동영상 더빙을 완료한 상황. 개발과 보완에 대한 과정상의 노력은 있으나 성과는 2013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 | 2. 위기개입 팀조직과 자 조 모임, 슈퍼비전 모임 | 1~12월 | 7회/7회 (85건) | 15명의 위기개입팀원을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사례위기개입팀으로 구성하였으며, 7개교의 학교에서 의뢰시 1차 본 복지관과 서울 생명의전화, 개발진이 함께한 개입 논의 후, 2차 위기개입팀원과 세부 개입에 대한 논의 및 개입 평가회로 팀원간의 피드백 제공, 자조·슈퍼비전모임을 진행하였음. 더불어 보수교육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 과정상 위기개입팀원을 모두 포함한 사업진행으로 1차년도(2011)사업 진행시보다 위기개입팀의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 |
| | 3. 자살발생 학교 발굴, 홍보 | 1~12월 | 5회/8회 | 본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학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접촉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사 및 대구지역의 청소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2회 실시. 보도자료 1건 실시. 실제로 본 자살사후개입을 문의한 14개교 중 5개교는 사업설명회 시 사업을 알게 되어 개입 문의하였음. 더불어 서울·경기도권 접근성이 높은 21개교 교육지원청에 공문 및 장학사 미팅으로 본 사업을 홍보하여 2012년 7개교에 개입하였음. |

| | | | | |
|--------------------|--------------------------------------|---------------------|--------------------------------|--|
| | 4. 전교생 위기개입 | 1월, 4월, 6월, 9월, 11월 | 3개교 (3,000명) / 5개교 6회 (3,175명) | <p>청소년 자살사안에 따른 상황별 맞춤형 개입 요청으로 총 5개교 6회 개입. 자살사건 이후 개입의뢰서와 담당교사, 워센터,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학교 상황 분석 및 본 기관 실무자 긴급개입회의, 위기개입팀원 회의로 학교 측에 위기개입을 위한 안내 및 가정통신문, 공지문, 척도지 등의 안내자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여고 자살 발생 학년 13개 학급(2회-420명), H고 전교생(1회-630명), D외고 1·2학년(1회-785명), K고 자살발생학년(1회-360명), G중 전교생(1회-980명) · 학교상황별 각 학급교육, 집합교육, 코위커를 활용한 방송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상의 노력이 있었음. |
| 생존 또는 사망한 학교 위기 개입 | 5. 학급위기 개입 | 1월, 4월, 6월, 9월, 11월 | 3개교 (90명) / 6개교 12회 (199명) | <p>사후위기개입을 위한 구조화된 매뉴얼 50%와 학교상황, 성별, 사안발생 사유에 따라 100분간 애도의식과 함께 슬픔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진행. 각 학급 또는 조용한 학교 내 공간에서 운영하였고 담임교사와 학교 안에 자살을 한 친구와 연관이 있는 친구를 포함하여 함께 학급위기개입 진행. 위기개입 이후 유품 정리, 이후 사후예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여고 (30명), J여고 (39명), H고 (26명), J중 (29명), K고 (40명), G중 (35명) 진행. |
| | 6. 교직원위기 개입 | 1월, 4월, 6월, 9월, 11월 | 3개교 (150명) / 4개교 4회 (203명) | <p>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마다 학생에 대한 개입만을 요청하는 학교가 대다수여서 교직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안내하여 4개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고 (45명), K고 (40명), D외고 (74명), G중 (44명) · 과정상 학급, 전교생에 대한 개입 이후 교직원 위기개입을 진행하였는데 4개교 운영 후 교사들의 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공동체에 대한 개입은 사안발생 직후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개입한 후 학급, 전교생을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임을 배움. 1회성의 위기개입 이후 교직원을 위한 장기적인 게이트키퍼교육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학생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안내함. |
| 생존자 맞춤형 사후 관리 | 7. 청소년의 친구·학부모·교직원·유가족 사후관리(심리검사·치료) | 1~12월 | 3개교 30회/ 4개교 40회 | <p>7개교 학교상황별 개입 대상이 다양하였으며, 접근성이 먼 지역은 인근의 유관기관 및 지부에 연계. 사례위기개입팀원의 지원과 가족치료 전문가 연계로 D여고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10회), J여고 고위험군 상담 및 인근 지역 치료 연계(1회), J중 고위험군 5명 집단상담(8회), 고위험군 학부모 상담(2회), 교직원상담(3회), K고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상담(3회) 및 교육(1회), 가족치료(12회) 실시.</p> |

③ 자살발생 학교 발굴, 홍보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학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접촉하여 학교사회복지사 및 대구지역의 청소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다. 보도자료는 1건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본 자살 사후 위기개입을 문의한 14개교 중 5개교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어 개입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경기도 권의 접근성이 높은 21개교 교육지원청에 공문 및 장학사 미팅으로 본 사업을 홍보하였다. 산출 측면에서는 목표로 정했던 5회보다 더 많은 8회를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생존 또는 사망한 학교 위기개입

① 전교생 위기개입

이 세부프로그램의 산출 목표는 3개교 3,000명이었으며, 실제 수행결과로 나타난 산출은 5개교, 6회, 3,175명이었다. 따라서 산출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자살사안에 따른 상황별 맞춤형 개입 요청으로 총 5개교를 대상으로 6회 개입하였다. 자살사건 이후 개입의뢰서와 담당교사, Wee센터,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교 상황을 분석하고, 본 기관 실무자들의 긴급개입회의, 위기개입팀원 회의를 가진 후, 학교 측에 위기개입을 위한 안내 및 가정통신문, 공지문, 척도지 등의 안내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D여고 자살 발생 학년 13개 학급(2회-420명)과 H고 전교생(1회-630명), D외고 1·2학년(1회-785명), K고 자살발생학년(1회-360명), G중 전교생(1회-980명) 등이다. 위기개입팀은 학교 상황별로 각 학급교육, 집합교육, Co-worker를 활용한 방송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② 학급 위기개입

학급 위기개입은 사후 위기개입을 위한 구조화된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 상황, 성별, 사안발생사유에 따라 100분간 애도의식과 함께 슬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각 학급 또는 조용한 학교 내 공간에서 운영하였고 담임교사와 학교 안에 자살을 한 친구와 연관이 있는 친구를 포함하여 함께 학급위기개입을 진행하였다. 위기개입 이후 유품 정리, 사후예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산출은 D여고(30명), J여고(39명), H고(26명), J중(29명), K고(40명), G중(35명) 등으로 총 6개교, 12회,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목표였던 3개교, 90명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③ 교직원 위기개입

교직원 위기개입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마다 학생에 대한 개입만을 요청하는 학교가 대다수였으나 교직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안내하여 4개교에서 실시하였다. 학급, 전교생에 대한 개입 이후 교직원 위기개입을 진행하였는데 학교별로 실시한 후 교사들의 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공동체에 대한 개입은 사안발생 직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개입한 후 학급,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회 위기개입 이후 교직원을 위한 장기적인 게이트키퍼교육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학생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산출은 H고 45명, K고 40명, D외고 74명, G중 44명 등 총 4개교, 4회, 203명이었으며, 이는 목표였던 3개교, 150명을 초과한 수치다.

(3) 생존자 맞춤형 사후관리: 친구, 학부모, 교직원, 유가족 사후관리

이 단위프로그램의 경우, 7개교 학교상황별로 개입 대상이 다양하였으며, 접근성이 먼 지역은 인근의 유관기관이나 지부에 연계하였다. 위기개입팀원의 지원과 가족치료 전문가 연계로 D여고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10회), J여고 고위험군 상담 및 인근 지역 치료 연계(1회), J중 고위험군 5명 집단상담(8회), 고위험군 학부모 상담(2회), 교직원상담(3회), K고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상담(3회) 및 교육(1회), 가족치료(12회) 등을 실시하였다. 산출 목표는 3개교 30회였으며, 실제 산출은 4개교 40회였다.

3) 프로그램 성과 평가

프로그램 성과 평가는 단위프로그램 중 학교 위기개입과 사후관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7개교의 전교생, 학급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개입하였고, 조사대상과 진행과정에 따라 평가방법도 다양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과 평가도 다양한 차원으로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 만족도

D여고 1학년 27명과 J여고 2학년 3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문항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에서는 전체 58명 중 16명이 매우 만족, 41명이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을 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불만족에 해당)는 응답도 1명 있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색달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관적 평가에 기록한 응답들을 분석한 결과는 마음이 편해짐, 작별인사, 좋았다, 기타 등이었다. 대체로 자살한 친구에 대해 생각하며 짐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프로그램 만족도 1 분석결과

| 구분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1 |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만족합니다. | - | 1 | 41 | 16 | |
| | *이유: 동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색달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음에 있던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다. | | | | | |
| | 분류 | 내용 | | | | |
| | 마음이 편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편해졌다. ▶ 편지쓰기를 통해 마음을 비워내고, 생명존중에 대해 더 잘 알게 됨. | | | | |
| | 작별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친구에게 제대로 작별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 덕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 줌 | | | | |
| 좋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 ▶ 많이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 ▶ 편지를 쓴 것이 만족스럽다. ▶ 감사합니다. | | |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달은 게 많다. ▶ 체계적이다.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힘든 친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을 했어야 한다. ▶ 너무 많아요. 그치려고 하면 또 생각나요. ▶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다. ▶ 한사람씩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 | | |
| 2 | 이번 집단 상담이 내가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친구를 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 - | 31 | 27 |
| | 이유: 친구를 보낼 수 있었다, 편지쓰기(3명), 편지 쓰는 시간이 좋았다(정리할 수 있는 시간), 편지 쓰면서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지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생각할 수 있었다. 천천히 인사할 수 있었다. | | | | |
| 3 | 이번 집단 상담이 내가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4 | 40 | 14 |
| | 이유: 집단이라 조금 불편함,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한 것 같다, 마음이 편해졌다, 편지 쓸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생각할 수 있었다. 천천히 인사할 수 있었다 | | | | |
| 5 | 이번 집단 상담이 친구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내가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 5 | 32 | 21 |
| | 이유: 마음이 편해졌다, 고민을 조금이나마 떨쳐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OO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 천천히 인사할 수 있었다. | | | | |

둘째, 위기개입 집단프로그램이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친구를 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각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매우 그렇다, 3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친구를 보낼 수 있었다’, ‘편지쓰기 활동을 통해 마음이 편해졌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셋째, 집단프로그램이 슬픔과 충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앞의 문항들에 비해서는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았다. 58명 중 14명은 매우 그렇다, 40명은 그렇다고 하였으며, 4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응답들의 이유는 앞의 문항들과 유사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집단이라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긍정적인 응답들 중에는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한 것 같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등의 답변들이 있었다.

넷째, 집단프로그램이 친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위의 문항보다 조금 더 고른 분포가 나타났다. 58명 중 21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5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들은 앞의 문항들에서 제시된 것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H고 3학년 21명, J남중 25명, K고 32명, G중 34명 등 4개교 1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전반적인 응답들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비율이 높지만, 앞서 2개교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중립적인 응답(보통이다)과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표 7〉 프로그램 만족도 2 분석결과

| 번호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무 응답 | 합계 |
|----|--|-----------------|-----------|----------|------------|-----------|---------|-----|
| 1 | 내가 오늘 도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3 | 7 | 30 | 42 | 29 | 1 | 112 |
| 2 | 나는 오늘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 4 | 12 | 31 | 44 | 19 | 2 | 112 |
| 3 | 오늘 활동에 참여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 2 | 7 | 40 | 37 | 24 | 2 | 112 |
| 4 | 오늘 활동에 참여하기 전보다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이 증가하였다. | 3 | 4 | 26 | 45 | 32 | 2 | 112 |
| 5 | 오늘 내가 받은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 5 | 12 | 37 | 41 | 14 | 3 | 112 |

사후 위기개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자살 사유나 장소, 상황 등 자살 관련 요인, 사건 발생 후 개입이 이루어진 기간, 학교 특성, 개입과정 특성 등)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행시간 측면에서는 오전에 진행했던 경우들이 효과적이었으며, 오후는 집중이 잘되지 않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진행장소 측면에서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진행한 경우에 효과가 높고, 시청각실 등 다른 장소로 변경하면 혼란스러워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전 위기개입에 대한 공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참여할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위기개입 매뉴얼이 있지만 학교의 자살발생 상황과 사유, 성별에 따라 활동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위기개입팀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 위기개입시 동영상, 음향, PPT와 편지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잘 되었는지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질적 평가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응답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첫째, 5개교 전교생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분석 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응답' 중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 주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본 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생명존중의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전교생 대상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질적 평가 분석결과

| 분류 | 내용 |
|---------------------------|--|
| 생명존중 의식 변화 및 재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 주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겠다. ▶ 내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가 되었으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도와주고 싶다.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청소년 생명존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다. ▶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어야겠다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생명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 오늘 활동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은어나 비속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
| 심리·정서적 안정을 가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해졌다. ▶ 후련하다. ▶ 정말 친구를 마음속에서 보낸 것 같다. ▶ 정리가 되고 편안해졌다, 내가 생각했던 일과 다른 친구에게 말 못할 내용을 적어서 기분이 괜찮아졌다. ▶ 맘이 활기분해졌다. ▶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였다. ▶ 마음이 뭔가 개운해진 느낌이다. ▶ 답답했던 게 시원하게 된 느낌이어서 좋았다. |

둘째, 6개교의 자살 청소년 발생 학급들에 대한 사후 위기개입 이후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인지행동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위기에 처한 친구를 돕는 학급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 위기개입 프로그램에서는 자살한 학생을 떠나보내는 의식과 편지를 작성하여 친구와의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기억하며 슬픔을 제거하는 일차적 강화를 사용하였으며, 현실로의 복귀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차적 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회복을 돕기 위한 동영상을 봄으로써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마다 자살사안은 다르지만 학급생들을 위하여 편지지에 애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소감으로는 ‘친구를 떠나보내서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다’, ‘하늘에 먼저 간 친구를 위해 작지만 나의 진심을 편지로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주변의 친구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고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생명존중 의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9〉 학급별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분석결과

| 분류 | 내용 |
|--------------------|--|
| 생명존중의식 변화 및 재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고,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 나의 인생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느꼈다. ▶ 우리들의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 심리·정서적 안정을 가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자살한 것을 내 책임,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느끼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 내 친구를 잃어 마음이 아팠는데 치료가 된 기분이다. ▶ 슬픈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이다. ▶ 마음이 편하다. ▶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

셋째, 4개교의 교직원 대상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질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이 세부프로그램은 자살 사후 위기개입과 대응,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소감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인식’,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법 인식’, ‘유익하였다’ 등이었으며, 교육의 도움도는 ‘짧은 시간에 내용이 너무 많았지만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고 이해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생명존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예방 차원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으로 보아 생명존중의식 변화 및 재인식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 교직원 대상 사후 위기개입에 대한 질적 평가 분석결과

| 분류 | 내용 |
|---------------------------|---|
| 생명존중 의식 변화 및 재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존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예방차원 노력의 중요성 인식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 메스컴에서 자살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리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심각하게 느껴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 |
| 대처법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좋은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 자살하려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자살, 삶, 학생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정 내에서도 포만감 갖는 관계를 위해 많이 얘기해야 할 듯합니다.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자료나마 알 수 있어 유익했다. |
| 유익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이 발생한 후 사후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서 학교관리자분들께도 매우 유익했으리라 봅니다. ▶ 유익한 연수였음 ▶ 필요한 도움을 받음 |

- ▶ 생명존중에 대한 진행자분의 열의와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 ▶ 매우 시기적절한 교육이었다.
- ▶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새롭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있다.
- ▶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듣고 도움이 되었다.
-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많이 몰랐던 것 즉 자살관련 전문 상담기관 꼭 활용하도록.
- ▶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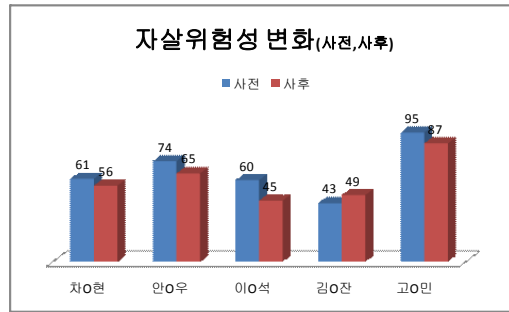
(3) 자살생존자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살생존자 사후관리로 D여고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10회), J여고 고위험군 상담 및 인근 지역 치료 연계(1회), J중 고위험군 5명 집단상담(8회), J중 학부모 상담(2회), J중 교직원 상담(3회), K고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상담(3회) 및 교육(1회), 가족치료(12회) 등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사후관리 과정과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여고 유가족 사후관리 상담(10회)은 접근성이 가까운 해당지역 지부에서 유가족 부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유가족이 원하여 10회 이후 상담이 종결되었으나 청소년이 사망한 지 1주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찰조사 결과 자살위험성은 1회기 상담시보다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J여고 고위험군 상담은 해당지역의 청소년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고 있으며, 같은 학급생 자살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 상담(2회), 반 학생을 자살로 잃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 상담(3회)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척도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상담 이후 본 기관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셋째, J중 고위험군 5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8회)을 진행한 결과, 자아존중감척도는 5명 청소년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이00 청소년이 +9점으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자살위험성은 이00청소년이 1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조사 결과로는 활동지 작성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가족들로부터 지지가 약함으로 오는 우울함과 분노감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의 죽음이 내 잘못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볼 때, 자살위험성 감소와 친구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방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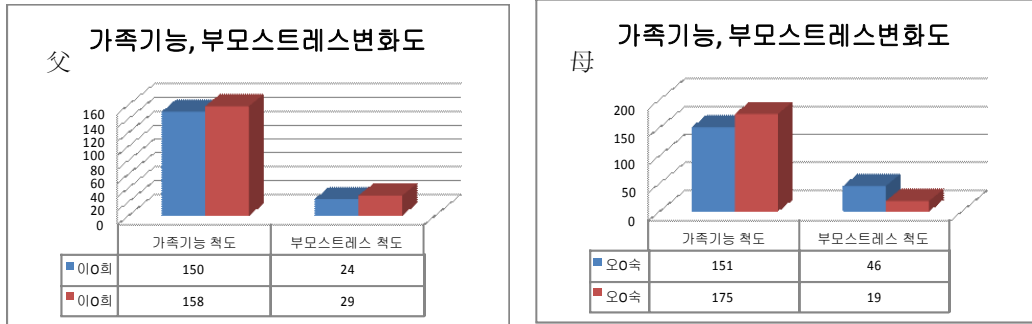
〈그림 3〉 자아존중감과 자살위험성 사전사후 비교결과

D여고에서 세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사전과 사후에 두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살위험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집단상담 사전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상담이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는 있다는 것이다.

〈표 11〉 D여고 집단상담 사전사후 비교분석 결과

| 구분 | | 평균 | N | 표준편차 | t 값 | 유의확률 (양쪽) |
|-------|----|-------|----|------|--------|--------------|
| 자살위험성 | 사전 | 7.82 | 66 | 2.36 | -2.285 | .776 |
| | 사후 | 7.88 | 66 | 2.71 | | |
| 자아존중감 | 사전 | 28.26 | 66 | 4.08 | -2.123 | .038* |
| | 사후 | 29.05 | 66 | 4.52 | | |

넷째, K고 사후 위기개입 이후,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상담(3회) 및 교육(1회), 가족치료(12회)를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의 경우 모는 24점, 부는 5점이 향상되었으며, 부모스트레스의 경우 모가 27점 감소, 부가 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부는 친구의 자살이후 자녀가 반복되는 자살시도를 하였고, 심리치료, 가족치료 이후 자살시도를 하지 않고 학교도 복학하여 적응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자살시도의 두려움 때문에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입 초기 어두운 표정과 자녀의 반복되는 자살시도, 부모부양과 학교등교 거부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담과 가족치료 종료 후 밝아진 모습과 자녀가 자살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함, 희망 등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4〉 사후관리를 통한 부모의 가족기능, 부모스트레스 변화 분석결과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한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틀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당사자 집단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 질을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혼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개입할 때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개입, 위기상황 극복 안내교육, 고위험군 선별방법 교육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신속하게 관련 학급과 전교생에 대한 위기개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자살 사후 위기개입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학급별로 진행함으로써 친구와의 추억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부교사가 코워커로 함께 참여하면서 고위험군을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후 사후관리 개입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면 더 좋을 것이다.

셋째, 자살 청소년이 발생한 학급생과 타학급생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살발생 학급과 타학급생 또는 전교생은 별도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교생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진행한다면 실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학급생들에게 적절하게 개입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후개입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우 간 갈등, 폭력, 가정 내 문제, 성적비관 등의 청소년 자살 이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사후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며, 이후 전국적인 유관기관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급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자살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체계는 언제든지 위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위기개입팀원의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위기개입 이후 슈퍼비전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청소년의 자살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즉각 위기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유관기관에 구체적인 지원사항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든 위기개입 진행상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유가족들은 자살사안에 대해서 심장마비 등의 다른 사유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 간의 위기개입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방체제로 돌입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자살한 청소년의 기념일, 1주년 등 주요 시기에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방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분야의 상급기관들은 공교육 내 각급 학교들이 자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차 학교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후 사후 위기개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일부 학교는 개입 직전에 위기개입팀의 진입을 취소하거나 거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살 사건 발생 후 위기개입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과정과 산출, 효과성 등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 접근의 측면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척도를 찾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 질적 접근의 측면에서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일회성 개입이라는 한계로 심층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질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득, 2012,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척 고통과 화해”, 『한국사회복지학』, 64(4): 5-29.
- 배주미·김은영, 2011, “대학생의 청소년기 학급친구 자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89-208.
- 배주미·이승연·김은영, 2010,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학교 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승연, 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통계청, 2012, “2012 청소년통계”, <http://kostat.go.kr>.
- 하상훈, 2009,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서』, 한국생명의전화.
- 한국생명의전화, 2011, 『청소년 자살이후 학교공동체 사후개입프로그램 매뉴얼』.
- Beautrais, A. L., 2003, “Suicide and serious suicide attempts in youth: A multiple-group comparison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93-1099.
- Bjarnason, T., and Thorlindsson, T., 1994, “Manifest predictors of past suicide attempts in a population of Icelandic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350-358.

- Blum, W., Beuhring, T., Shew, L., Bearinger, H., Sieving, E., and Resnick, D., 2000, "The effects of race/ethnicity, income, and family structure on adolescent risk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2): 1879-1884.
- Blum, R. W., Harmon, R., Harris, L., Resnick, M. D., and Bergeisen, L., 1992, "American Indian/Alaskan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31644.
- Bolognini, M., Plancherel, B., Laget, J., and Halfon, O., 2003, "Adolescent's suicide attempts: Populations at risk, vulnerability, and substance use", *Substance Use & Misuse*, 38: 1651-1669.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and Schweers, J.,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521-529.
- Buddelberg, C., Buddeberg, F. B., Gnam, G., Schmid, J., and Christen, S., 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s: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 78-86.
- Grossman, D. C., Milligan, B. C., and Deyo, R. A., 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Pfeffer, C., Klerman, G., Hurt, S., Lesser, M., Perskin, J., and Siefker, C., 1991, "Suicidal children grow-up: Demographic and clinic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609-616.
- Pompili, M., Lester, D., De-Pisa, E., Del-Casele, A., Tatarelli, R., and Girard, P., 2008, "Surviving the suicides of significant others",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uicide and Crisis Studies*, 29(1): 45-48.
- Prinstein, J., Boergers, J., Spirito, A., Little, T., and Grapentine, L., 2000, "Peer functioning, family dysfunc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 risk factor model for adolescent inpatients' suicidal ideation surve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392-406.
- Wong, J., Brownson, C., and Schwing, E., 201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Asian American students' suicidal ideation: A multi-campus, national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2: 396-408.

An Evaluative Study on the School-Based Post-Suicide Crisis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Choi, Meehee

(Life Line Social Welfare Center)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chool-based post-suicide crisis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Researchers implemented the post-suicide crisis intervention program for all the students, classmate students, teachers and staff members in seven middle/high schools where the suicidal accident happened. Researchers collected data from the three participant groups using open and closed questionnaires and documents,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mixed evaluative methods.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lassmates in two classrooms responded that this crisis intervention program was useful for expressing the sad feeling and mourning their friend. Second, consciousness for life respect of classmates in four classrooms increased. Third, the meaning such as the change of consciousness for life respect and psychological stability was drawn from analysis of categorizing the responses to open questionnaires. Teachers and staffs in six school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at post-suicide crisis intervention was helpful for classmat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practical guidelines were suggested.

Key words: school-based, adolescent suicide, post-suicide crisis intervention, program evaluation

[논문 접수일 : 13. 08. 31, 심사일 : 13. 09. 11, 게재 확정일 : 14. 01. 02]